

저자 약력

조나 힐데가드 사니엘 암페어(Zona Hildegard Saniel Amper)

필리핀 세부 산카를로스대학교(University of San Carlos) 예술과학대학에서 2009~2011년 사회인류학과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류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2013년에는 필리핀 인류학협회(Anthropologica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전국 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산하 인류학 기술분과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Anthropology) 회원이다. 지난 15년간 특히 농촌, 해안 및 작은 섬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지식체계 등 다양한 문화·사회적 측면에 관한 지역공동체 발전 이니셔티브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젤코 브에리아츠(Željko Bjeljac)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과학예술 아카데미(Serbian Academy of Science and Arts), 요반 츠비이치 지리연구소(Geographical Institute Jovan Cvijić) 사회지리과 과장 겸 주임연구원. 과학 전문분야는 관광지리와 인류지리학이고 전문 연구 분야는 관광 행사이다. 주요 관심사는 관광 행사의 분류와 범주화의 문제, 행사의 조직적 측면, 역사 지리, 문화 지리, 지역 개발 등이다. 국내외 잡지에 90 편 이상의 글을 기고하고 네 권의 저서를 집필, 공동 집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요한 츠비이치 지리연구소 저널, 사사(The Journal of the Geographical Institute 'Jovan Cvijić', SASA)》의 편집장을 지낸 바 있다 (2009~2012).

에바 레티시아 브리토 베니테스(Eva Leticia Brito Benítez)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Mexico)에서 중앙 아메리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립멕시코인류학역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nthropology and History of Mexico)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유·무형 문화유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멕시코 캄페체 주 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복원교육기관(National School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연구진이기도 하다. 주 연구 분야는 문화전파로 관련 저서 4권과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마샤 버로스(Marcia Burrowes)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문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바베이도스 서인도제도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UWI)에서 문화학과 코디네이터 겸 강사로 재직 중이며, 캐리비안 고급능력인정시험(Caribbean Advanced Proficiency Examinations, CAPE)의 캐리비안학 시험감독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공연 문화, 전통 가장무도회 및 기타 문화적 실천 형태로 표현된 카리브해 지역의 아프리카 연속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희경(Choi Heekyung)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ICCN) 사무국장. ICCN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무형문화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관동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 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관심 분야는 관광학과 지방 무형문화이다.

정희주(Chung Heajoo)

마야 문명 전문 고고학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Mexico)에서 중앙 아메리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발표한

저서로는 『옥수수 문명을 찾아서(Search for the Maize civilization)』(2013), 『마야인의 전쟁과 평화(Mayan War and Peace)』(2011), 『치첸이트사 연대기(La Cronologia de Chichen Itza)』가 있다.

네베나 추르치치(Nevena Ćurčić)

노비 사드 대학교(University of Novi Sad) 자연과학대학, 지리·관광·호텔경영학과 부교수. 국내외 잡지에 관광,接客, 지리 분야에 대한 80편 이상의 글을 기고했다. 주요 관심사는 관광업의 마케팅과 경영에 관계된 문제점과 호텔 경영, 브랜딩, 관광 행사, 농촌 관광, 서비스의 질, 경쟁과 지역 개발 등이다. 논문「자원, 관광 프로파간다, 관광 홍보 활동 촉진을 위한 응용 지도 제작 자료에 대한 정성적 평가(Qualitative assessment of resources, tourist propaganda and applied cartographic material aimed at improving the promotional activities in tourism)」(2010)를 집필했으며 두 권의 텍스트북을 공동 집필했다.

스티븐 앵겔스만(Steven Engelsman)

박물관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든 수학사가(數學史家). 네덜란드 레이든의 국립자연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History of Science)의 큐레이터 겸 부관장을 지냈다. 1992년에 역시 레이든에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으로 옮겼다. 두 박물관 모두 대대적인 개축 공사를 했으며 갤러리를 증축했다. 2012년 5월, 5년 임기로 비엔나의 민족학박물관(Museum für Völkerkunde) 관장으로 임명되어 박물관 이관과 개명, 대대적인 개축 공사 지휘를 맡았다. 박물관은 2013년 세계박물관(Weltmuseum Wien)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개축 사업은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외즐렘 카라쿨(Özlem Karakul)

터키의 코냐(Konya) 셀чук대학교(Selçuk University)의 미술대학 조교수.

역사적 주거지의 보존과 전통 건축물의 복원 및 재사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2011년 터키의 중동 공과대학교(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건축학과에서 복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동 공과대학교 건축학과 객원연구원으로 아나톨리아(Anatolia)의 전통 수공예기술에 대한 박사 후 연구를 수행 중이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유네스코 터키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간의 관계, 역사유적지의 전체론적 보존, 아나톨리아 고유 건축 양식의 전통 장식기술, 역사적 장소의 새로운 건축물 등이다.

karakulozlem@gmail.com

남수미(Sumi Nam)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ICCN) 프로그램 기획관이다. 지역 무형문화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분야에서 지방정부와의 공조 하에 회의를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와 코스타리카 소재 유엔평화대학교(University for Peace)에서 언론·평화·분쟁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NGO 포럼에 ICCN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지역공동체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흐름의 정보매개체로서 NGO」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마티아스 렘(Matthias Rehm)

덴마크 올보르대학교(Aalborg University) 미디어 기술(Media Technology)과 조교수이다.

1998년 독일의 빌레펠트대학교(Bielefeld University)를 졸업하고 2001년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우등)를 받았다. 2008년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Augsburg)의 정보과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연구 중점 분야는 직관적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intuitive human computer interaction)을 위한 일상행동의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다중모드(multimodal) 상호작용, 체현 에이전트(embodied agents), 문화-인식 기술 분야에서 9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마르셀 로비손(Marcel Robischon)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와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수학했으며 산림학자이자 생물학자이다.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에 소재한 미국 농림부 산림청(USDA Forest Service) 산하 산림유전연구소(Institute of Forest Genetics)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고 그 후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ät Freiburg)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지금은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Humboldt Universität)에서 생명과학과 주니어 교수직을 맡고 있다. 특히 관심을 둔 연구 분야는 자연 보전과 세계유산이다. 최근 저서로는 『세계가 침묵에 잠길 때(Vom Verstummen der Welt)』(2012)와 『생물다양성 상실은 어떻게 문화적 빈곤화를 낳는가(Wie uns der Verlust der Artenvielfalt kulturell verarmen lässt)』(독일 외곰(Oekom) 출판사) 등이 있다. 후자의 책은 2014년 “중세계변동적정개시: 생물다양성적쇠감여하도치문화빈핍 (從世界變得寂靜開始: 生物多樣性的衰滅如何導致文化貧乏)”(대만 성방출판사(Cité Publishing Ltd))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카스페르 로딜(Kasper Rodil)

덴마크 올보르대학교(Aalborg University) 건축, 디자인 및 미디어 기술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Design and Media Technology) 특별연구원이다.

지난 4년 동안 나미비아의 두 토착종족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팀과 함께 디지털 원형 설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해 두 종족과 협업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여러 수준 높은 학회논문, 학술지 논문, 서적의 발행 등으로 이어졌다. 로딜 박사의 연구 주제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조 로봇기술 설계가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을 통한 사회적 공간 및 장소의 재창출과 연계한 유산 및 도시 문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라차니콘 사왕(Ratchaneekorn Sae-Wang)

태국 타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혁신단과대학 문화경영학 강사이다. 최근「란나 건축에 나타난 여성성: 해석 논문」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건축유산 경영 및 관광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또한 여성학 석사학위와 불어학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수린 현장학교에서 받은 영감에 힘입어 직물과 문화 상업화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문화유산 경영과 성별화된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다.

라슈미레카 사르마(Rashmirekha Sarma)

인도 구와하티 공과대학교(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Guwahati)의 인문사회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르마 박사의 논문은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무형문화유산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인도 고고학 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구와하티 지부(Guwahati Circle)의 프리랜서 연구자로 소속되어 있다.

알렉산드라 테르지치(Aleksandra Terzić)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과학예술 아카데미, 요반 츠비치치 지리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전문 연구 분야는 사회 지리, 인구 통계학, 문화연구, 민속지학, 관광 등이며 특히 동남 유럽, 다뉴베(Danube) 지역, 발칸 지역과 세르비아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외 잡지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기고했으며 저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르비아 관광 진흥의 측면에서 본 ‘다뉴베 요새’의 문화길 개발 전망(Perspectives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route "Fortresses on Danube" with the function of enriching the tourist offer of Serbia)』(2014)을 집필, 발간했다.

류 장(Liu Zhuang)

투자(Tuja)족 출신이며 중국 쓰촨대학교(Sichua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칭 무형문화유산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hongqing) 부소장, 충칭문화유산대학(Chongqing Cultural Heritage College) 부총장, 충칭예술과학대학교(Chongqing University of Arts and Sciences) 문화와 미디어대학 부학장 부교수이다. 인류학과 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남서부 소수민족 집단의 구전 전통과 공연예술, 정체성이다.
lz@cqwu.edu.cn